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강임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과정

정화영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교수

김명숙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전담교수

국 문 요 약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학습을 통해 창업자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을 습득해야 한다(최서윤, 2017).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전공 및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이우진·김진수·김용태, 2013).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고,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윤방섭, 2004). 대학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을 하고, 대학생들은 이러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져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보건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보건계열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자기보고식 작성방법에 따라 설문조사 되었다. 총735개의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총 675개의 설문을 최종 설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과 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보건계열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중 위험감수성만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인 대학창업지원활동, 정부창업지원정책 중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대학창업지원제도만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창업은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최근 정부는 청년 실업률 감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창업국가를 지향하며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창업지원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영향을 미쳤고, 대학에서도 정부지원사업 유치와 창업관련 전담 부서를 배치하여 청년창업가 육성에 앞장서

고 있다. 정부기관 및 대학은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한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안승권, 2009).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학습을 통해 창업자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을 습득해야 한다(최서윤, 2017).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전공 및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이우진·김진수·김용태, 2013).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고, 개인의 태

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윤방섭, 2004). 대학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을 하고, 대학생들은 이러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져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이 개인적 특성,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되었다.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가 조절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2.1 창업가특성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가 개인의 특성이다. 창업 과정에 영향을 주는 특징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등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Brockhaus & Horwitz, 1986; 이지우, 2000; 백운정, 2003; 윤방섭, 2004; 이승재·황보운, 2010; 박우철, 2010).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인간,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조직화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타인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능라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을 일컫는다(Murray, 1938).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Bandura, 1977). Boyd & Vozikis(1994)는 창업분야의 자기효능감을 특정 업무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위험감수성(risk taking)은 불확실하거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Byrd(1986)는 위험감수란 개인이 자신의 조직 내 위치, 경력, 자존심 등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하여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2 창업교육

대학의 창업교육은 그 역할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교육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수의 대학을 제외한 다수의 대학들은 창업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강의실에서 특허를 분석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지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목영두, 2011; 안승권, 2016).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생들은 창업교육은 스스로의 비전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대안으로서의 창업이 아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선택하는 주도적인 창업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대상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3 창업지원제도

대학은 창업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장소이며, 창업가를 생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천이다. 대학은 기술과 경영역량 등 창업가로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잠재적 창업가를 양육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서정해, 2006; 이영달 외, 2003; 조영호, 2017). 대학은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학생들의 창업가적 특성을 개발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의 창업지원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창업지원제도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과정에서의 창업절차 상담, 창업 컨설팅, 자금지원 등의 창업지원제도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서 창업 행동의 전조 행위라 할 수 있다(McGee et al., 2009). 창업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프로세스로 볼 때,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Bird, 1988).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이자 개인의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윤방섭, 2004; Crant, 1996). 즉, 창업의지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벤처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Bird, 1988).

3.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교육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창업지원제도 중 대학창업지원활동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창업지원제도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전국의 보건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보건계열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자기보고식 작성방법에 따라 설문조사 되었다. 총 735개의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총 675개의 설문을 최종 설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한 가설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가설 검증 방법으로는 첫 번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의지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두 번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 번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총 675명으로 성별, 만나이, 교육수준, 학부전공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470명(69.6%), 남성이 205명(30.4%)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고, 만나이는 평균 20.66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2-3년제 대학 재학생이 634명(93.9%), 4년제 대학 재학생이 41명(6.4%)로 조사되었

고, 학부전공은 응급구조과 187명(27.7%), 임상병리과 118명(17.5%), 피부미용과 106명(15.7%), 환경보건과 62명(9.2%), 간호학과 38명(5.6%), 물리치료과 33명(4.9%), 작업치료과 32명(4.7%), 치위생과 26명(3.9%), 장례지도과 25명(3.7%), 화장품과학과 24명(3.6%), 안경광학과 19명(2.8%), 의무행정과 5명(0.7%)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설문구성의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은 성취욕구 3문항(Cronbach's α =.794), 자기효능감 4문항(Cronbach's α =.874), 위험감수성 5문항(Cronbach's α =.816)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조절변수는 창업교육 19문항(Cronbach's α =.974), 창업지원제도는 대학창업지원활동 8문항(Cronbach's α =.882), 정부창업지원정책 7문항(Cronbach's α =.946)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11문항(Cronbach's α =.960)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Cronbach's α 값이 0.7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가설검증

4.2.1 가설 1 검증

가설 1.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창업가 특성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개의 창업가 특성 독립변수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측정된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43.267,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은 .05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창업의지 총변화량의 16.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검증결과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중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의 경우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4.2.2 가설 2 검증

가설 2. 창업교육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창업교육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 관계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조절효과 단계별 분석단계에 따라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이 투입되며, 2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과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이 투입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창업가 특성, 창업교육, 상호작용항인 성취욕구*창업교육, 자기효능감*창업교육, 위험감수성*창업교육을 투입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R2은 모형 1에서 16.2%, 모형 2에서 30.5%, 모형 3에서 30.9%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의확률 변화량이 .361로 나타나 .05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교육은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2.3 가설 3 검증

가설 3. 창업지원제도 중 대학창업지원활동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창업지원제도 중 대학창업지원활동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 관계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조절효과 단계별 분석단계에 있어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과 조절변수인 대학창업지원활동을 투입하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창업가 특성, 대학창업지원활동, 상호작용항인 성취욕구*대학창업지원활동, 자기효능감*대학창업지원활동, 위험감수성*대학창업지원활동을 투입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학창업지원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R2은 모형 1에서 16.2%, 모형 2

에서 38.4%, 모형 3에서 39.5%로 점차 증가하였고, 유의확률 변화량도 .008로 .05보다 작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4 가설 4 검증

가설 4. 창업지원제도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특성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창업지원제도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 관계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조절효과 단계별 분석단계에 있어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과 조절변수인 정부창업지원정책을 투입하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창업가 특성, 대학창업지원활동, 상호작용항인 성취욕구*정부창업지원정책, 자기효능감*정부창업지원정책, 위험감수성*정부창업지원정책을 투입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R2은 모형 1에서 16.2%, 모형 2에서 22.3%, 모형 3에서 23.6%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유의확률 변화량이 .438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과 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보건계열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중 위험감수성만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인 대학창업지원활동, 정부창업지원정책 중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대학창업지원제도만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